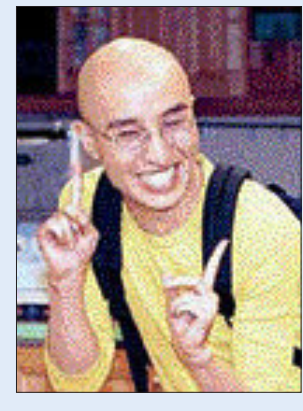


'커밍아웃' 홍석천, 성공회대서 특강



연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학생단체가 아닌 대학 본부가 주최하는 특강에 강사로 나서는데는 이례적이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홍씨의 강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소수자 인권에 대한 시각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사 초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커밍아웃’(Coming-Out)을 통해 동성애자임을 밝힌 연예인 홍석천(35)씨가 18일 성공회대학교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11일 “교내 학생교류처가 개최하는 ‘제1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영화 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로 18일 오후 5시 시청각실에서 ‘홍석천의 커밍아웃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남 의대 동문 줄 잇는 ‘모교사랑’

김용일씨 장학금 1억 쾌척 이경수총장 ‘~동산’ 조성 전남대 의과대학에 동문의 기증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951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이경수 대법대 총장이 최근 의대 신축 강의동 후문 언덕에 아름다운 동산을 조성한 데 이어 전남대 의대 6회 출신인 김용일(73·사진 한가운데)씨가 10일 1억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한 것. 김씨는 조선훈 의대학과장 겸 선대병원장을 역임했으며, 부인인 김응일(60·늘푸른소아과 원

장)은 물론 아들(김민)과 며느리(박미정)도 전남대 의대 동문이어서 모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의대는 김씨가 기증한 기금으로 ‘김용일 장학금’을 신설해 기증자의 뜻에 따라 성적에 우수하지 않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경수 대법대 총장도 지난 4월 전남대 의대 신축 강의동 후문 언덕이 맨땅으로 노출돼 동산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나무, 빛나무, 철쭉 등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동산을 조성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전남농협, 도서벽지 초등생 초청 서울 견학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운순)는 11~12일 관내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2개 초등학교 학생을 초청, 서울 견학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협의 공익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용은 농협이 부담한다. 대상학교는 벌교초·신안 흑산초등학교 관내 분교이다. /이종태기자 jlee@

생활 게시판

-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김주환(조선대학교 총장)씨 아들 재호(송원고 교사)군 강진원씨 딸 경화양=13일(토) 오전 11시 10분 광주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이연(이연안과 원장)씨 장남 준호군 마석원씨 장녀 서연양=13일(토) 오후 5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오명모씨 장남 정웅군 이종업(광주MBC 국장)씨 장녀 아영양=13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홍희준(나주교육청 교육장)씨 장남 진욱군 오희준(전남대 사범대학)씨 장녀 슬현양=13일(토) 낮 12시 오페라하우스. ▲강사원(전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씨 막내 성웅(삼성 SDS 과장)군 오정걸씨 장녀 수민(삼성 SDS 대
- 리)양=13일(토) 오후 1시50분 오페라하우스 1층. ▲김진수(보성고 교장)씨 아들 응재(E랜드 팀장)군 국경숙씨 딸 정혜영(E랜드)양=13일(토) 오후 1시 광주 프린스호텔 2층. ▲박종원씨 장남 태영(LG전자)군 김주식(전주의 성요한병원)씨 장녀 대현양=14일(일) 낮 12시 고흥명가 음식점. 피로연 12일(금) 오후 5시30분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강성원씨 3남 태욱군 장인성씨 차녀 소영양=14일(일) 낮 12시30분 천주교 학운동 성당. ▲최재욱씨 장남 종화(인성한의원장)군 양희수(거상수출산업사장)씨 차녀 정인양=14일(일) 오후 1시20분 경북공예재단빌딩 1층 경북공예. ▲광상 32회(일지모) 동창회=12
- 일(금) 오후 8시 일곡지구 다도회 힐링, 011-9609-0055 ▲광주복성중 제 15회(회장 박의재) 40주년 기념행사=13일(토) 오후 6시30분 프라도호텔 2층. 011-608-2510 ▲광주사대부중 제 4회(회장 정성수) 동창회=13일(토) 오후 1시30분 천산동 가원 232-8877 ▲광주금호고 총동문회(회장 이개호) 체육대회=14일(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11-616-6554 ▲광주석산고 4회(회장 김영운) 체육대회=14일(일) 오전 9시30분 담양연천 열 '옥동각 잔디구장'. 011-629-8226 ▲광주인성고 가족한마당=14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018-646-9444 ▲광주서석고 광주·전남지역 동문 체육대회=14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운동장. 011-622-5500 ▲광주 북성중 한마음 대축제(총동창회장 유흥용)=14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운동장. 523-1300 ▲광주 효동 32회 정기 월례회=16일(화) 오후 8시 북구 우산동 화니농나물해장국. 523-2550 ▲광주 진흥고 2회(회장 조갑현) 월례회=16일(화) 오후 7시 마곡동 또또반집. 011-601-2207 ▲광주공고 총동창회 정기총회=17일(수) 오후 7시 마곡동 아라랑비 2층 백송실. 575-8255 ▲정음 호남고 동문회=18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조대부고 제 19회(회장 기동도) 부부동반총회=21일(일) 오전 10시40분 영주체육관 주차장 출발. 369-0081
- 도지원 광주광산구분원(분원장 리재철) 정기총회=12일(금) 오전 10시30분 송정농협 경제사업소. 225-5631 ▲충주지씨 광주·전남 청장년회(회장 지형원)=13일(토) 오후 4시 병천사(광주 CBS동) 011-618-2389 ▲김해김씨 금령군 광주·전남 증친회(회장 김기철) 정기총회=13일(토) 오전 11시30분 동구 통나무명가. ▲문화류씨 하정공파 유적지당사 모임=13일(토) 오전 7시 광주역. 010-3051-2415 ▲창원 황씨(시중공계) 광주·전남 증친회(회장 황양선) 제9차 운영위원회=13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수가동 제일오피스텔 19층 연회장 232-6400 ▲고씨 광주 증동회(회장 석태) 정기총회=14일(일) 오전 11시 농성동 교원공제회관 13층 연회장. 017-601-6630 ▲임해정씨 광주·전남 정덕회(회장 정길태) 임원직 이·취임식=14일

5·18 첫 총상자 김영 찬씨와 그를 구한 의사 정은택교수 17년만의 해후

“아픈 상처 보듬으며 이젠 자주 만나야죠”

5·18 민중항쟁 당시 첫번째 총상자인 김영찬(44)씨와 거리에 쓰러진 김씨를 구한 정은택(49·원광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해후했다. 17년만이다. 이들은 11일 오전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약속을 청한 것은 정 교수가 먼저였다. 정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연구실에 들어서면 김씨에게 약속을 청했다. 정 교수는 “1989년에 한 번 만났으니가 17년 만이네요”라며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서먹함을 풀려는 듯 80년 5월 이야기를 꺼냈고 김씨가 26년 전 기억을 맞춰갔다. 총부리 앞 “사람 먼저 살리겠다” 구원 손길 “월요일이었죠? 내가 정확히 기억해” “맞습니다 선생님” 80년 5월 19일. 그 해 2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두달여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전남 지역 공중보건으로 배치받아 사령장을 받기 위해 전남도청을 다녀 오는 길이었다. 김씨는 친구들과 함께 북구 중흥동 집까지 걸어서 가던중 쪼 단에 불을 붙여 잠잠차로 풀려드는 사람들을 본 뒤 자신도 모르는 새 이들 틈에 끼어 맨 앞에 나서게 된 것. 이 때 잠잠차의 뚜껑이 열리고 총부리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공포탄이 발사됐고 곧바로 땅을 향해 실탄이 난사됐다. 김씨는 아스팔트를 밟고 튀어오른 실탄들에 오른쪽 아랫배를 맞아 쓰러졌다. 발포가 끝난 뒤 거리에 넘쳐났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로 교련복 차림의 대학생과 총을 맞고 쓰러진 검은 교복 차림의 김씨만 남았다. 정 교수는 “사람을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입고 있던 흰 점퍼를 벗어 돌리며 구원을 요청했고 이에 군인은 “더 이상 사격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하늘을 향해 총을 세우고 빙빙 돌렸다. 정 교수는 옆에 있던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업고 50m 가량을 뛰어 외과 병원으로 들어갔지만 모두 대피하고 간호보조원만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정 교수는 간호보조원과 함께 침착하게 김씨의 배에서 실탄 3-4발을 빼내고 몇 바늘을 꿰맸다. 김씨는 이를 뒤 의사에서 깨어났지만 9개월 간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가망 없다’는 판정을 받은 만큼 큰 부상을 입은 김씨는 장(腸) 2m 가량을 도려내는 등 7차례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거듭한 탓에 19일 이후 80년 5월의 기억은 없다. 정 교수 역시 “실탄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들이 총을 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따지듯 출석을 강요하는 계엄사와 보안대를 피해 다음날 새벽 발령지인 순천으로 도망치듯 옮겨가 이후 광주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갈등을 풀 듯 정 교수는 김씨의 근황을 묻기 시작했다. 김씨는 89년 한전에 입사해 아내, 3자녀와 함께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볼링도 수준급이어서 광



11일 오전 전북 익산시 원광대 병원 정은택(49·오른쪽) 교수의 연구실에서 정 교수와 김영찬씨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가망 없다’ 7차례 대수술... 볼링 꼭성군 대표

주시 대표와 직장이 있는 꼭성군 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제 명확히도 교환했으니 우리 자주 만나야죠?” “네 선생님. 그동안 면목이 없어서도 연락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자주 연락 하겠습니까” 3시간여 짧은 만남 뒤 광주로 향한 김씨는 차창을 보며 “교련복 입은 대학생, 간호보조원, 목재소 사장 내 삶을 지켜준 은인들 모두 한 번 뵙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

“아내와의 순애보... 시심 트뤼웠어요”

13일 2번째 시집 출판회 갖는 정 건 철 도체육회 사무처장 시집을 발간하게 됐다. 광주사범부속속-송일중-광주상고(현 동성고)-조선대 체육학과를 거친 정 사무처장은 1962년 체조선수에 입문, 제42회 전국체육대회 제패를 시작으로 10여년의 선수생활을 했다. 또 30여년의 지도자 생활을 통해 2004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 은메달리스트 김대은(한국체대) 등 솔한 국가대표들을 배출해왔다. 정 사무처장이 시(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교 2학년. 정 사무처장은 아내인 김유순씨(58)와 편지로 ‘순애보’를 나누면서 시심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군생활 3년동안 하루 1~2통의 편지로 사랑을 키워간 정 사무처장은 시집 정 사무처장은 1962년 체조선수에 입문, 제42회 전국체육대회 제패를 시작으로 10여년의 선수생활을 했다. 또 30여년의 지도자 생활을 통해 2004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 은메달리스트 김대은(한국체대) 등 솔한 국가대표들을 배출해왔다. 정 사무처장이 시(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교 2학년. 정 사무처장은 아내인 김유순씨(58)와 편지로 ‘순애보’를 나누면서 시심에 대해 눈을

경기도 시흥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 5·18묘지 참배



경기도 시흥시 민주당 5·31지방선거 후보들이 11일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선욱 시의원 후보·이재걸 도의원 후보·신창균 시의원 후보·임병권 도의원 후보·신종현 시의원 후보·이명호 시장후보·김일식 도의원 후보·김병선 시의원후보·문병암 시의원후보. /위지락기자 jrwi@

“엘리자베스는 나의 영원한 연인”

방한 히딩크 애정 과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청부사’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래된 연인’ 엘리자베스와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다. 11일 오전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10개월여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히딩크 감독은 역시 엘리자베스와 함께였다. 한·일 월드컵을 4개월여 앞둔 2002년 2월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에 참가할 당시 처음으로 엘리자베스를 공개한 이후 4년이나 흘렀는데도 사랑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방한 일정에는 SBS 대담 프로그램에 황선홍 전남 드래곤즈 코치와 함께 출연하는 것 이외에는 축구와 관련된 것이 없다. 특히 현 호주 대표팀 사령관을 맡고 있는 히딩크 감독은 방한 전날인 10일 네덜란드에서 호주의 독일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나름대로 후련한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광주과기원 졸업생 조동규 박사 ‘뇌졸중 발병원인’ 세계 첫 규명

광주과학기술원 졸업생이 논문으로 주 저자로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이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뇌손상 과정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11일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2002년 생명과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조동규(33·사진)박사가 최근 미국 등의 연구원 11명과 함께 ‘뇌졸중에서 감마세크리타제에 의한 나치(Notch) 신호의 활성화와 뇌손상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 박사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원인인 아밀로이드베타(Aβ)를 생성시키는 감마-세크리타스(γ -secretase)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 나치를 활성화시켜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모임

- ▲2006 100원회 정기총회=14일(일) 오전 11시 서창농협 3층 회의실. 011-666-0660
- ▲한남지씨 별세 박재홍·현주씨 모친상 박형석씨 빙모상=발인 13일(토) 그랑저녁식당 5분향소 250-4405
- ▲송한용씨 별세 상근·정근·양근·호근·은숙·윤숙씨 부친상=발인 13일(토) 그랑저녁식당 7분향소 250-4407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삼일모듬특별반양 (062) 521-1100

넓고 편안한 무등장레식당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전) 대표: (062) 515-4488